

# 비주류 경제학 거의 모두를 한 권에 박만섭 엮은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 박만섭 엮음 | 이슈투데이 | 408쪽 | 값 22,000원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아 들어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등이 있다.

국내 경제학계에서 모처럼 좋은 책이 하나 나왔다.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위하여》라는 책이 그것으로서, 경제학의 비주류 중에서 비중이 크고 이론적인 의의도 간과할 수 없는 학파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박만섭이 엮었고,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을 비롯하여 국내 경제학계에서 공부하는 학자들로 이름이 높은 정주연, 이근, 김창욱, 이상호, 홍태희, 김이석, 이상현, 김진일, 류동민, 김덕민, 서환주 등이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하였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책이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거나 읽어내고 싶은 정책당국자들이나 일반인도 한번쯤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주류 경제학,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 크다.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경제학의 위기'라는 의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아마도 조안 로빈슨 여사가 처음 그 단초를 제공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난국에 처하자 이 의제는 더욱 큰 관심을 끌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선 뒤에는 경제학계 전체가 이 문제에 매달린 듯이 보일 정도였다. 물론 주류 경제학계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 경제학으로서의 그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 밖에 없었으며, 비주류 경제학이 각광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경제학계의 다양한 몸부림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각 학파들의 이론이 소개되어 있다. 즉, 제도경제학, 사회경제학, 진화경제학, 생태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 신오스트리아학과,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 구조주의 경제학, 스라피언 경제학, 맑스주의 경제학, 급진적 정치경제학, 조절이론 등이 그것들이다. 이런 많은 분파들의 이론을 한 권의 책에 소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책은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만큼 각 학파의 핵심적인 이론은 빠뜨리지 않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비주류 경제학을 거의 모두 한 권의 책에 엮음으로써, 한 눈에 살필 수 있게 한 것이 이 책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경제학이 처한 위기적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아니 경제학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탈출할 길을 찾기 위해서는 비주류 경제학을 한꺼번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은 여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경제학계의 학문적 성과는 이 책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이 위기에 처했다면 당연히 국내 경제학계에서도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했고, 어느 정도의 이론적 성과도 나타나야 했다. 물론 경제학의 선진국들에서조차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므로 굳이 국내 학계를 탓할 일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자연과학계에서는 이미 탁월한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이언스>나 <네이처> 또는 <셀> 등의 세계적인 학문저널에는 국내 과학자들의 논문이 자주 실리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국내 경제학계는 좀 더 큰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경제학계로서도 세계 경제학계가 깜짝 놀랄 성과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국내 경제학계가 세계 경제학계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현 경제학의 위기를 해소할 만한 결정적인 이론은 경제학의 선진국이라는 서양에서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대체적으로 서양은 학문에 접근하는 자세가 다분히 분석적이고 형식에 치중하며 지나치게 자연과학적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서양의 경제학계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경제학이 지나치게 분화를 거듭하여 학자들의 전문분야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분야에 한정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학의 전반적인 위기에 대한 성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주류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틀인 일반균형이론이 현실적으로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미적인 완결성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나치게 과학적인 자세가 계량할 수 없는 변수는 모두 이론체계에서 제외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도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가격이론은 품질이라는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 또한 수학적 접근이 가장 과학적이라는 경제학계의 미신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또 이론의 근본적인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수학이라는 대단히 심미적인 수단이 경제학 기초이론의 근본적인 한계를 덮어버림으로써 경제학계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학문에 접근하는 자세가 전통적으로 분석

적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이라고 할 수 있고,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연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인문과학적인 경향이 강하다. 현재의 경제학이 처한 위기적 상황에 대한 처방은 동양의 이런 접근자세에 의해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경제학의 위기는 서양의 위와 같은 접근자세에 의해서 초래되었다고 해야 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적이고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자연과학적인 서양의 학문자세에서 그 해결책을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이며 인문과학적인 자세에서도 그 탈출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주류 경제학은 물론이고, 비주류 경제학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 이론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것은 서양이 아니라 동양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학계가 나아가갈 방향도 이곳이 아닌가 한다.

사실, 내가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발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재야경제학자로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40년 가까운 세월 모진 고생을 감내해야 했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처자식까지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야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펴냈고, 경제학계의 평가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재야 경제학자에 불과한 내가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고 나섰다. 나보다 훨씬 좋은 여건인 경제학자들로서는 더욱 가열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이 땅을 세계 경제학계의 메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제학의 역사에도 이런 사례가 하나 있다.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위하여》라는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멩거를 비롯하여 그의 뒤를 이은 뵘바베르크와 미체스 그리고 하이에크 등이 오스트리아 학파를 형성한 것이 그 사례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당시 경제학의 후진 지역이던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은 일약 경제학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다(중략). 1930년대에 들어와서 비엔나대학은 영미의 경제학자들이 유럽을 방문할 때 반드시 들르는 곳이 될 정도로 경제학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194쪽)” 이에, 우리 경제학계의 분발을 기대하는 바다. **★**